



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4년 3월 19일

CUOMO 주지사, 암 환자를 위해 대체 치료법을 연구하기 위한 NEW YORK GENOME CENTER와 IBM WATSON GROUP 사이의 제휴 발표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난치성 악성 뇌종양 환자를 위한 게놈 치료법 대안을 연구 및 개발하기 위한 New York Genome Center와 IBM Watson Group 사이의 제휴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제휴는 New York Genome Center에 대한 주정부의 5500만 달러 투자와 University at Buffalo의 고성능 컴퓨터 센터에 대한 Buffalo Billion의 5000만 달러 투자를 활용합니다.

“게놈의학 같은 첨단 혁신 기술에 대한 뉴욕주의 투자는 서부 뉴욕주 지역과 우리 주 전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New York Genome Center와 IBM 사이의 협업은 이 지역을 급속 성장하는 바이오테크 산업의 새로운 중심으로 만들 것입니다.”

주지사는 2014년도 시정연설에서 뉴욕시의 대학교 의학 커뮤니티와 떠오르는 Buffalo의 의학기술 회랑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위한 1억여 달러를 약속한 바 있는 데 이 약속은 집행예산에 포함되었습니다. NY 게놈의학 네트워크는 뉴욕주를 위해 신흥 게놈의학 분야에서 경제적 및 의학적 이득을 포착하고 업스테이트 뉴욕을 게놈의학 연구 및 일자리를 위한 전국적 센터로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이 네트워크는 뉴욕시의 의학계를 University at Buffalo의 컴퓨터 인프라 및 Roswell Park Cancer Institute의 연구 공동체와 연계합니다. 슈퍼컴퓨터 자원 및 전문가들을 가진 Buffalo 기관들은 NY Genome Center가 컴퓨터 계산 능력을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질병 진단에 긴요한 유전체 연구 및 분석의 속도를 늘릴 것입니다.

유전체 의학에 집중하는 5개 회사들이 이미 Buffalo로 옮기거나 이 지역에서 확장하기로 약속하였는데, 다수가 Buffalo Niagara Medical Campus에 있습니다. IBM은 New York Genome Center와의 협약 이외에 Buffalo 정보기술 혁신 상용화 허브를 창조하기 위해 뉴욕주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추가로 5,500만 달러를 지원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2,500만 달러는 개방형 혁신 시설을 구축하는 데 사용되고, 3,000만 달러는 이 새 시설에서 사용할 IT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구매에 사용될 것입니다. 이 허브는 뉴욕주의 소유가 될 것이며 IBM은 첫 번째 입주자가 되고 모든 주정부기관의 모든 IT 부서가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설은 Buffalo 다운타운에서 2015년

Korean

초에 문을 열 것입니다.

게놈의학은 의료비를 줄일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제약회사의 선반에 앉아있는 많은 약 화합물들이 새 용도를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전체 의학이 치료의 표준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다음 5년 동안에 의료비가 5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뉴욕주는 Buffalo에 새 생명을 불어 넣고 있으며 우리가 서부 뉴욕주 경제를 재활성화하고 재건하는데 진지함을 기업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Standard and Poor's는 최근 Buffalo의 General Obligation 채권 등급의 상향 조정에서 상향 조정의 근거로 '주정부 지원 경제 개발'을 들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